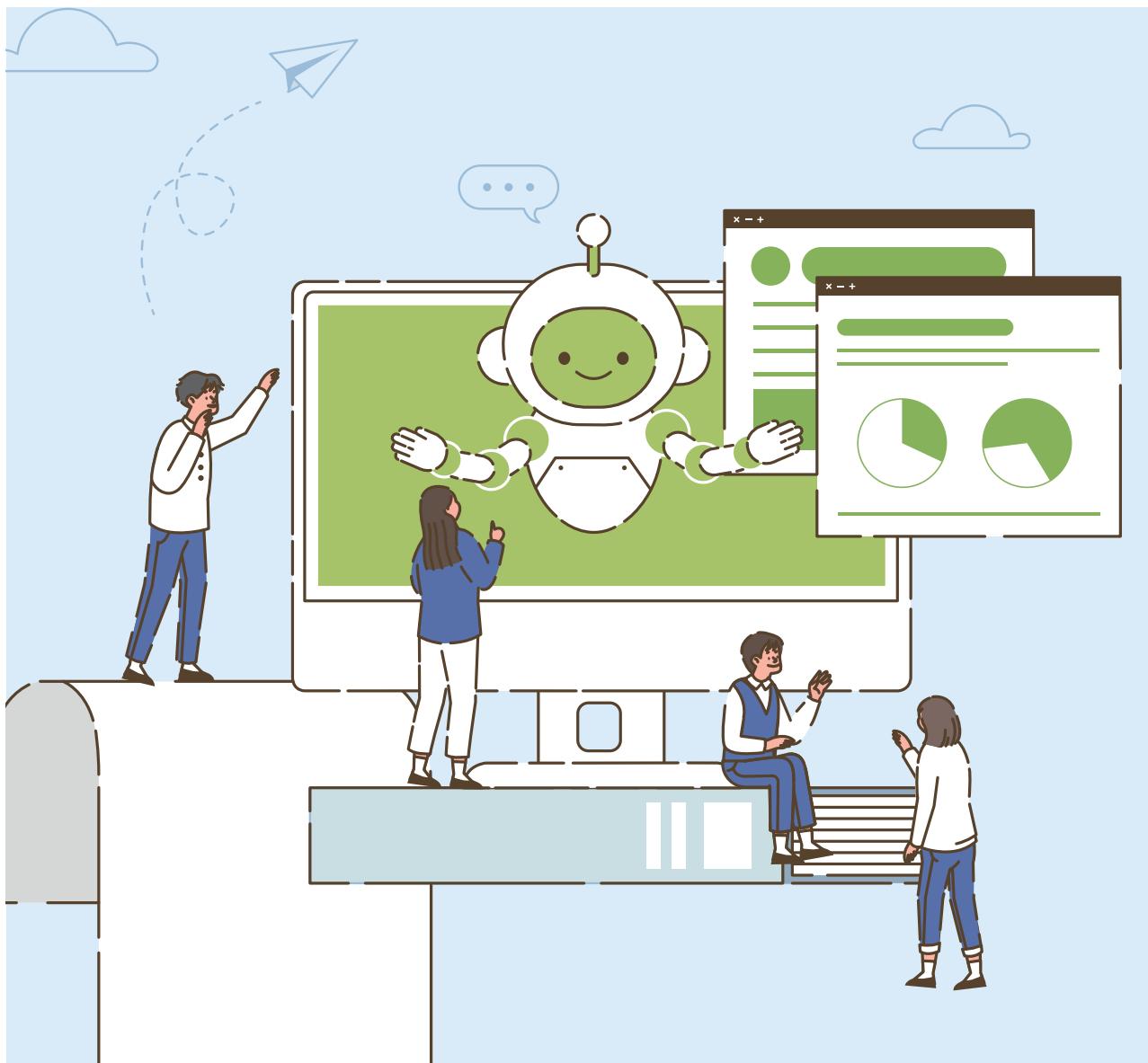


참사람 36.5°C

Vol. 26 | 2023년 3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CONTENTS 목차

발행일

2023년 3월 3일 금요일
Monthly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참사람 36.5°C 온라인
chamsaram.org



Cover Story

CHAT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의 성장이 가파릅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 온 미래 변화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경이로운 시스템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누리는 것에만 급급하여
결국 종속될 것인지, 혹은 AI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이용자가 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04

참사람을 말하다

인간에게 내려진 적색경보 :
인공지능, 축복일까? 재앙일까?
– 챗GPT를 중심으로 –



06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죽음을 청소해주는 사람
글 _ 독자 신재군



08

책으로, 참사람으로
‘안녕하세요, 비인간동물님들!’을 읽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병아리님께
글 _ 천안여자중학교 황정원

‘안녕하세요, 비인간동물님들!’은
어떤 책?
글 _ 안광복
철학자/중등고등학교 교사



14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신학기의 시작,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18

교보교육재단 인성교육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11

참사람 인터뷰
2022년 교보교육대상
참사람 육성 부문의 수상자
오승훈 선생님을 만나다



18

제21기 교보생명 희망다솜
신입 장학생 증서수여식



19

숲에서 톡!톡!톡!(talk)
2023 가족 소통 인성 캠프
참가가족 모집 (1~3차)

인간에게 내려진 적색경보 : 인공지능, 축복일까? 재앙일까?



챗GPT를
중심으로

똑똑하고 다정한 내 친구

이 친구의 능력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엄친 아’입니다. 미국 의사면허시험 USMLE을 통과했고, 미네소타 대학의 로스쿨 졸업시험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세계 최고의 경영전문대학원인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기말시험에서 준수한 학점을 기록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지요.

거기에 더해, 이 친구는 심성이 참 곱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친구들에게 공유해줍니다. 어찌나 체력이 좋은지 때로는 숙제를 대신 해주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너무 다정한 게 문제라면 문제랄까요? 녀석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이 친구의 힘을 빌려 과제와 논문을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Chat GPT)입니다.

챗GPT라는 신세계

챗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OPEN AI가 지난 2022년 11월 30일에 출시한 대화형 AI 챗봇입니다.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생성적 사전학습 변환기’ 정도가 되는데,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과연 챗GPT는 그 이름처럼 간단한 지식이나 의견을 답하는 것은 물론 ‘시’나 ‘소설’을 창작하는 일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시 이후 누적 사용자가 1억 명을 넘겼다고 하니 그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챗GPT는 사용자가 체험할 수 있었던 기존의 인공지능 서비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완성된 형태의 글을 제공하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구가 결혼하는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

챗GPT

친구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선물은 두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용하고 장기간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 좋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방기구나 가구, 그리고 신혼 여행용 캐리어나 기타 용품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 문화가 확립된 지금은 부부가 원하는 리스트를 작성해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축하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액자로 만들거나, 인테리어용 화분도 좋습니다. 혹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직접 만든 손편지나 온라인 카드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의 예시는 챗GPT에 직접 질문을 던지고 받은 답변입니다. 실제 사람과 대화한 내용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풍부한 정보와 의견을 유려한 문장으로 담아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AI가 사무직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다. 이미 늑대는 문 앞에 있다”고 보도하며 챗GPT의 등장이 화이트칼라를 위협하

고 있다는 노골적인 경고를 실기도 했지요.

교육계에 울려퍼진 적색경보

직업의 대체까지는 꽤 훗날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작 타격을 실감하는 곳은, 다른 아닌 교육계입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 철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챗GPT로 작성한 과제를 제출하여 문제가 되었고, 워싱턴대와 버몬트대는 아예 ‘AI를 활용한 표절 금지’를 학내 규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교육부는 지역 공립학교 네트워크에서 챗GPT 접속을 차단하기까지 했으며, 전통과 권위를 갖춘 과학 학술지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챗GPT 등의 인공지능을 논문 공동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수도권의 한 국제학교에서는 재학생 7명이 챗GPT로 영문 에세이 과제를 한 사실이 들통나 전원 0점 처리되었으며,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챗GPT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담당자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제질학기 과제에 도움을 받았는데 A+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챗GPT가 쓴 글인지를 식별하는 탐지 서비스 ‘제로GPT’까지 등장했다 하니, 이 정도면 교육계는 지금 인공지능과의 전쟁이 선포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

전문가들은 지금 교육계에 불거진 챗GPT 사태가 불러올 두 가지 문제점을 우려합니다.

하나, 능력 개발의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고, 이를 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제는 학생이 수업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또한 수행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실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깨우침을 얻게 되지요. 하지만 인공지능에게 본인의 역할을 위임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는지 진단할 수 없게 됩니다.

둘, 점점 더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창의성과 판단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

에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며, 독립된 개인이자 성인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와 같은 과의존이 추후 직업윤리와 같은 중요한 시민 의식과 연계될 수도 있다는 점이지요. 단순히 학교 숙제를 맡기는 선에서 끝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도할 것인가, 종속될 것인가

콜롬비아 판사 파디야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고백해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부모가 저소득을 이유로 자폐 자녀의 의료비 문제를 청구한 사건이었으며, 파디야 판사는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해당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챗GPT에게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면제받는가?” 등의 질문을 입력, 도출된 답변과 정보 등을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점차 인공지능 서비스가 모든 영역을 초월하여, 결국 의존성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걱정이 실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영국,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공장의 기계를 파괴하며 산업혁명을 막고자 했던 ‘러다이트Luddite 운동’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처럼 4차 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은 그 진보를 막거나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나은 선택지는 AI와 현명하게 공존하며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 이지만, ‘주도적인 활용’과 ‘전적인 의존’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챗GPT의 개발사인 OPEN AI의 대표 샘 알트만 역시 ‘중요한 과업을 챗GPT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대신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리하는 사회, 그건 아마 축복보다는 재앙에 가깝다는 이야기지요.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대신 맡기는 것에만 급급하면, 결국 우리 인간의 지능과 감각은 지속적으로 퇴화하고 중국에는 AI에 종속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AI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AI가 빠르게 정보를 취합하여 전달한다면, 통찰을 통해 입체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찰은 생각하고 질문하는 역량을 통해 키워낼 수 있으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과 기계의 가장 큰 차이는 지혜의 유무일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 이면의 맥락과 개념을 파악하고 지혜를 쌓아 올리는 것은 결국 오로지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통찰을 통한 지혜의 축적은 우리에게 당면한 숙제입니다. 덧붙여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가 옳은 내용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문해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겠지요.

부산시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은 올해 새학기부터 챗GPT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따랐지만, 교육의 방점을 ‘윤리적이고도 올바른 활용’에 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디 이 시도가 인간과 AI의 바람직한 공존 방향을 정립하는데 나침반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죽음을 청소해주는 사람

글_신재군



사회복지사 일을 하며 우연히 알게 된 분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일반 청소는 물론, 고인의 유품 정리 업무를 함께하시는 1인 청소대행업체의 유일한 직원이자 사장님입니다. 며칠 전, 평소 알고 지내는 00동의 어느 통장님으로부터 참으로 딱한 사연을 들은 저는 마침 경찰서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그 분께 의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통장님께 들은 사정 이야기와 함께 조심스레 몇 가지를 부탁드렸더니 다행히 사장님께서 오케이하시고 작업 날짜까지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뒤, 특수 방진 마스크며 각종 청소 장비들을 단단히 쟁겨 오신 사장님과 함께 전달받은 주소의 집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방문하는 날, 사장님과 함께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업은 일반 청소대행업이지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명함 한쪽에 타이틀이 하나 더 생겨버린 게 바로 이 ‘유품 정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유품을 잘 정리해서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혹시나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법정 상속자에게 정확히 양도하고, 그러고도 정말 끝까지 버릴지, 안 버릴지, 도저히 결정이 안 된 유품들은 의뢰인이 결정할 때까지 사장님의 임시로 자기 집 창고 안에 잘 포장하여 보관까지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그날 맡은 청소 일을 다 끝내고 자기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집 창고 안에서 웬지 모르게 진한 향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침 출근 전, 창고에 들어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실 고인 분들께 최고의 예의를 갖추며 그날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웬지 꼭 그래야만 그날의 청소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요. 먼저 고인이 되어 멀리 길을 떠나셨으나, 고인의 삶이 아직 생생히 녹아있는 유품들은 남은 가족 분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보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특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주소지의 그 집을 찾아가려고 사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그 동네를 순환하는 마을버스도 이 주택 인근에는 아예 정차하지 않아서, 개인 차량이 없으면 일부로라도 찾아가기 어려운 00구 00동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심한 바람이 불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작은 담장 하나만이 두 집 사이의 경계를 애처롭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층 주택의 녹슨 철문이 빼거덕하고 열리면서 60대 정도로 보이시는 아주머님 한 분이 지치신 얼굴로 저희를 맞이하러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꼭대기 집까지 도움들 주시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직 군인이시라는 그분이 얼마 전에 여기서 돌아가신 저희 세입자이신데, 저희가 그분의 가족 연락처도 통 모르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근처 주민 센터에 직접 문의했더니 고인의 부모님은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현재 이 집의 유품을 거두어 줄 친족들도 계속 연락 부재로 파악된다고….”

사장님께서는 그런 아주머니의 마음을 먼저 안심시키기 위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입자분의 갑작스러운 부고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집에 들어가 고인의 유품 정리와 집 내부 청소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주머님께 전화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맨눈으로 보기에도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시는 아주머니를 뒤로하고 저와 사장님의 집 안에 먼저 들어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각자 청소 도구들을 한 손에 집어 들고 대문을 통하여 미리 받은 마스터 열쇠로 현관문까지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의 상태는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어디선가에서 풍겨오는 심한 악취와 더불어 바닥에 기어 다니는 구더기며 이상하게 생긴 각종 벌레 때문에 방 안으로 들어가기가 선뜻 꺼려졌습니다.

“복지사님, 아까 내부 사진 한 장 찍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만 하시고 얼른 다시 나가세요. 여기 청소는 나 혼자서 마무리할 테니. 이거 생각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청소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록 저도 얼굴은 못 봤지만,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예의와 정성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중에 혹시 친척분이라도 수소문해서 찾아오실 수 있으니 고인의 물품들도 구별하기 쉽게 잘 정리해 놓아야 하고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작업에 방해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저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집 밖으로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거의 한 트럭이나 되는 각종 쓰레기를 분출하신다고 몇 번이나 집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하시던 사장님은 거의 5시간에 걸쳐 고인의 집 청소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집 안에 있던 유품들까지 크기별로 택배 상자 안에다 모두 집어넣어 정리하셨습니다.

사실, 며칠 전 제가 통장님의 사정을 듣고 사장님을 수소문해 조심스럽게 요청 드렸던 내용은 여기까지 운전하여 오는 차비정도 밖에 안 되는 적은 비용으로 혹시나 아무런 연고 없이 오랜 세월을 홀로 지내시다 돌아가신 분의 집 청소와 유품 정리를 좀 해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전화에도 사장님께서는 ‘맡겨주신 일, 감사히 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 말과 함께 웃으시며 단번에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남들이 많이 꺼리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이 청소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시면서 가족이나 친족들도 피하는 고인의 마지막 채취를 곁에서 묵묵히 치워주시고, 그 뒤에 남은 유품들 또한 가족과도 같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이 챙기시려는 사장님의 타인을 위한 참된 마음과 사회에 대한 봉사심에, 제 마음도 저절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소 종료 후, 사장님을 도와 집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짐들을 차 안으로 옮기던 중, 유품을 담은 택배 상자의 구멍 사이로 작은 액자사진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디의 경치 좋은 바닷가에서 찍은 듯, 무척이나 즐거운 표정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 고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오늘 사장님의 참된 마음을 보며 느끼고 계실 표정은, 이 사진을 보고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짧은 군인 머리 스타일로 군복 바지를 입은 한 남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인간동물님들!'을 읽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병아리님께

글 _ 천안여자중학교 황정원

안녕하세요, 병아리님. 제 편지에 많이 갑작스러우셨죠?

이 책을 읽고 나서 병아리님께 꼭 편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는 동안 아주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편지를 쓸 대상도 많았지만, 어째서인지 1부에서 잠깐 나온 병아리님이 자꾸만 기억에 남아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병아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드라운 털, 헤엄치는 지느러미 정말 사랑스럽고 바라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동물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 관심을 둔 적도 없었고요. 이 책을 고른 것 또한 제가 단순하게 동물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물을 하등하거나 약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적도 없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에 저는, 나도 채식을 해보고 싶다, 동물 보호를 하고 싶다와 같은 생각들이 들기도 했지만, 채식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는데, 이에 대해 마음을 어떻게 다잡고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책을 고르려고 했지만 이 책이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이 해답을 주지 않을까 하여 이 책을 고르고 책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오래 전에는 동등한 존재라고 소개되었고요. 클로비스의 창이 등장하고, 사육 시대가 온 후, 동물 지배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동물 실험과 공장식 축산 농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부분에 따르면 패터슨이 동물과 노예의 통제 방식이 같다며 공장식 축산 농장을 지적했습니다. 족쇄를 차고 낙인이 찍힌 채로 강제노동을 하는 노예와 동물을 축산하는 공장식 축산농장이 영원한 나치스 수용소와 같다고 말입니다.

병아리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얼마 전 역사 시간에 우리 민족과 더 나아가 많은 인간들이 선택권도 없이 잘못 하나 없이 감옥에 갇혀서 원치 않는 생체실험을 받았던 731부대와 나치스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해 배웠거든요. 저는 그런 생체실험을 가한 이들이 너무나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에게 가하는 그 행위가 동물들 입장에서는 제





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끔찍한 이들과 같이 동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비인간 동물님들께, 그리고 병아리님께 인간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시대가 다르니만큼 생각이 다르므로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조금 미웠습니다.

동물실험이 점점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3R 원칙과 동물실험을 행할 때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감각 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와 같은 동물보호법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돼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점차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려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책장을 또 한 장 넘겼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특정 외양을 강조하기 위한 품종 교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불도그라는 강아지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강아지라고 언젠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귀엽잖아요! 하고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책에 나온 키가 큰 예전의 불도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같은 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어요. 저는 불도그의 주름이 그저 매력적이라고만 생각했지, 주름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얻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걸 보며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도 제돌이를 잡아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은 어부들의 욕심 때문에 좁은 시멘트 수조에서 고생을 한 걸지도 모르겠다고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돌이는 바다로 돌아갔다고 해요! 제돌이가 바다에 돌아가는 부분에서 저는 제가 제돌이가 된 듯이 상상하며 몰입해서 읽었어요. 시멘트우리가 아닌 넓은 바닷가가 보이고, 거친 물결이 느껴지는 내가 살던 고향 바다. 바다에 온 해방감과 기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헤이마이 섬에는 돌고래 바다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수조에서 태어나 야생의 생활을 잘 모르는 돌고래들을 보다 편안하게 바다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곳이 있었다니, 정말 멋지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곳의 이름조차 잘 모르고 있던 저를 보면서 정말 이런 문제들에 관심이 없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아리님, 저는 어릴 적에 동물을 무지 좋아했지만, 학교 현장체험학습 빼고는 딱히 동물원에 찾아간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잘 데려가 주지를 않으셨거든요. 나중에 어머니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지 몰라서 동물원에 자주 데려가 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도 동물원에 관한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생각이 났나 봅니다. 책에서는 생크추어리에 관한 내용도 아주 잠깐 나왔습니다. 전에 할아버지랑 생크추어리에 관련된 다큐를 재밌게 본 기억이 났어요. 기존의 동물원처럼 동물들을 관광 목적으로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살던 서식지의 환경과 온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조성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며 보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동물 보호 목적의 동물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겠죠?

하지만 동물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책의 끝자락에서 들어낸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분명히 무언가 해야 할 것입니다. 병아리님,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해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해답을 찾지는 못한 거 같아요. 하지만 그 대신에 전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에 부모님이 동물원에 안 데려가신 것도,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를 위해 그런 생각을 해주신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동물을 좋아한다면서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제대로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아 반성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 똑같이 생명 앞에서 평등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병아리님, 제가 편지를 너무 지루하고 길게 썼나요? 혹은 너무 감정을 이입해서 썼나요? 너무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겪어온 모험을 병아리님께 너무 말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책에게는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익숙했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고, 마음의 키를 키워주고, 제 생각의 정리를 도와준 길잡이 같은 존재가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병아리님과 다른 비인간 동물님들께 염치없지만,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병아리님,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병아리님처럼 너무 세상을 일찍 떠난 소중한 생명들의 피해를 줄이고 이 사회를 모두가 좀 더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혼자의 힘으로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에서 큰 힘도 딱히 없을 테지요. 하지만 저는 큰 힘은 못되더라도, 제자리에서 성실히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믿고, 병아리님께 약속할게요. 이제 하늘에서는 부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기도하며, 진심으로 빕니다.

안녕하세요, 비인간동물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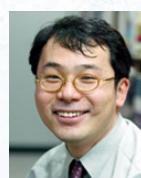


희세 시대, 우리 곁의 동물과 어떻게 관계 맺을까.

'안녕하세요, 비인간동물님들!'은 어떤 책?

지속 가능한 세계를 고민할 때 도움을 줍니다.

인간도 동물이다. 여느 생명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동물들도 사람처럼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애정을 바라며 외로움에 지치기도 한다. 이 책은 공장식 농장에서 식재료로 키워지는 가축들,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는 생명들, 그리고 위기에 몰린 다양한 야생 상태의 동물들의 현실을 조곤조곤 들려준다. 나아가 인간과 다른 동물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한다. 생명윤리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주는 책이다.



안 광 복 철학자/중동고등학교 교사

'일상에서 철학하기'를 실천하는 임상 철학자.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동대학원에서 '소크라테스 대화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철학교사로 재직 중이다. 『철학, 역사를 만나다』,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 등 10여 권의 철학 교양서를펴냈다. 다양한 매체의 글쓰기와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이들을
존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승훈 선생님을 만나다.

2022년 교보교육대상 참사람 육성 부문의 수상자인 오승훈 교사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학교 현장에서 전인교육을 실천해왔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과 갈등, 상처와 아픔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연극지도, 문화예술체험, 노작교육, 텃밭교육, 학교정원 가꾸기 등을 통해 인성교육에 전념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 시기를 놓친 학생들과 아침공부를 하며 따뜻한 배움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었다. 그녀를 만나 참사람 육성의 길을 물었다.

오승훈 교사의 인터뷰 장소는 학교가 아니라 병원이었다. 졸업생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 학교로 이동하던 새벽, 교통사고가 났다. 차를 폐차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였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게 다 아이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선생님.

“우리 아이들 중에 졸업식 때 못 준 선물도 편지도 좀 주면서 이야기할 게 있어서 방학 첫날 여섯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에 아이에게 줄 편지와 선물이 떨어져서 줍는 사이 포크레인 뒤를 받고, 가드레일을 받았어요.”

두 달간 병원에 있었지만 오로지 아이들 생각뿐이다. 새 학기 수업을 준비하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선생님. ‘완쾌가 먼저 아닐까요?’란 질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살려주셨으니까 애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살아야죠.” 하며 너털웃음을 짓는다.

나를 교사의 길을 걷게 해준 스승

오승훈 교사에게 참교사의 방향을 제시한 분은 전남대 임재윤 교수다. 80년대, 대학가에 민주화의 열망이 한창이던 시절 오승훈 선생님 역시 공부보다는 사회활동이 우선이었다. 자연스레 학부공부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졸업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임재윤 교수는 오승훈 선생님을 직접 찾아와 교사의 길을 가라고 당부했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교사가 되라고 하셨지요. 당신께서 도와줄 테니 선생님이 되라고, 아이들을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그때 저도 깨우쳤죠. 그때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선연해요. ‘오승훈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정이 많아서 선생님을 하면 잘할 거야.’라고 하셨죠.”



교사는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참교사가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녀는 “교사라면 아이들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라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한다. 작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180통의 편지를 받았다. 선생님은 학교 생활이 여러가지 이유로 힘들었다는 마음을 편지에 쓴 친구들에겐 몸이 회복되면 손수 답장을 쓸 계획이라고 한다.

“힘든 아이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결핍된 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아이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도 함부로 그 아이에게 교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입장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교사입니다.”

오승훈 선생님이 33년 간 교사생활이 행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했다.

“그냥 교사니까 나를 만난 아이들이, 나를 만나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넘어설 수 있고, 또 좀 더 좋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하늘이 준 교사만의 달란트가 아닐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안의 힘을 키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며, 그러한 사명을 실천해나가는 숙명을 누구보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오승훈 선생님. 그녀에게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민과 사랑으로 아이를 귀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다보면 아이들도 언젠가는 그 선생님의 진심과 사랑을 알게되더군요.”

교사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교사의 삶이 어렵다는 걸 오승훈 교사는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그녀 역시 힘든 시기를 겪으며 결국 교사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학교를 위해서 교사연수 프로젝트를 만들어 함께 연구했다. 전국의 대안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올바른 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했다.

“교사니까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품고 기다리며 바르게 변화할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할거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나의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는 한편, 꺽이고 넘어진 아이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않고 곁에서 잡아주면 조금씩 조금씩 언젠가는 아이들이 변해가는걸 느끼게되더군요.”

좋은교육 좋은 세상은 말로해서 되는게 아니라 여려가지 형태의 끝없는 실천과 노력이 필요한거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정년이 3년밖에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하다는 선생님. 아이들에게 해줄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 일분일초가 아쉽다고 한다. 근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줄어들며 빈 강의실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은 학교가 곧 마을의 중심이며, 그렇기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준비하다.

“학교의 빈 교실 하나를 전시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젊은 신인 작가나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열어주고 싶어요. 전시회의 작품을 보고 아이들이 생긴 의문을 정리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문화예술을 접하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더욱 더 커지는 것 같다면 들뜬 마음으로 열심히 설명하는 선생님에게 정년 이후에 대해서도 넘지시여쭤봤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을 꾸미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계획을 세우고 있단다.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해매는 아이들 다 데리고, 이렇게 지역과 연계하는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뛰어 놀게 하고 싶어요. 하자센터와 같은 교육공간인 셈이죠. 교육협동조합 형식을 생각 중이고 여러 선생님들과 소통 중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있는 그대로 응원해줄 수 있어서

교보교육대상의 수상이 선생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내심 궁금했다. 선생님 대답은 간결했다.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 그거 하납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내비쳤다.

“당연히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 여기고 살아왔는데 뜻밖에 상을 주셨어요. 저보다 더 훌륭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저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더 열심히 사는 것이 보람이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번 상금은 정말 소중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말을 다짐하던 오승훈 교사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학교에 어려운 애들이 좀 있잖아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선생님의 뜻과 삶과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1~3학년 학생 4명씩 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했습니다. 각 학년부장 선생님이 추천해주셨고, 신청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개별 상황에 맞추어 직접 상장의 글을 작성해서 전달했지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오승훈 선생님. 인터뷰를 하는 내내 웰 실버스타인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올랐다. 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도 행복해하는 나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승훈 선생님이 아닐까.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유능한 교사’라고 한다면, 삶과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는 ‘위대한 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 훌륭한 교사를 넘어 위대한 교사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오승훈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언제까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신학기의 시작,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조금씩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찾아왔습니다.

교보교육재단 참사람 36.5도는 이번 호에서 특별하게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이 아닌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이 되어,
학부모님들께서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을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네, 허용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고 해도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Q.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네,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경우,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학교 기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네, 모두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
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Q.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출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네, 허용됩니다.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
민과 학부모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참석자 중에 공직자 등이 있
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운동회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
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네, 관련 법령 절차를 따른다면 가능합니다. 「학교체육진흥
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적법하게 편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단, 법령을 따르지 않고 금품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운동부
지도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
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학교는
학부모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 이·취임식
이나 시무식,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사회 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로서
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일부 규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이 준용되고, 학부모의 본래 직업이
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교 자녀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네. 허용됩니다. 고등학교와 학부모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입시설명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자녀의 생일을 맞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네,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교보의 가족이 된 걸 환영 해!”

제21기 교보생명 희망다솜 신입 장학생 증서수여식

지난 2월 16일,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대산홀에서 ‘2023년도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생 증서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재단은 교보생명과 함께 지난 2003년부터 보육원 퇴소 및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장학사업을 펼쳐, 올해로 벌써 21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날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대산홀에서 개최된 증서수여식에는 울산, 제주, 목포 등 전국에서 선발된 제21기 신입 장학생 22명이 참여했습니다. 재단의 따뜻한 환영 인사와 함께 신입 장학생의 릴레이 자기소개,



증서 수여, 희망다솜 장학생 다짐 낭독 등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성장과정에서 도움을 준 감사한 분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증서수여식에는 자립을 준비하는 후배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 졸업생 특강을 마련, 자립과정의 어려움과 노하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따뜻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자립을 경험했던 선배로서 이제 훌로서야 하는 신입 장학생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교보의 가족이 된 22명의 신입 장학생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목 「배려를 배워요! 출동 배려맨!」

대상 미취학 아동

과정 8~10분 내외 영상 / 총 5차시



“출동! 배려맨!”

교보교육재단 인성교육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록 돋는 콘텐츠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배려를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배려’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풀어 주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과 주변 사회를 배려해 주고 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타주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깊으며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큐알코드 링크를 통해 배려맨을 만나고 가족 모두가 함께 배려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보시면 어떨까요?

재단은 작년 한 해 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과제를 공모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재단의 지원을 통해 좋은나무성품학교에서 제작한 「배려를 배워요! 출동 배려맨!」은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덕목인 ‘배려’를 중심으로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생활 속에서 말, 생각,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숲에서 톡!톡!톡!(talk)

2023 가족 소통 인성 캠프 참가가족 모집 (1~3차)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숲에서 갖는 가족 간 인성 함양 시간
교보교육재단이 숲 속 가족 소통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 대상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

모집 인원

3개 캠프 총 27가족(캠프 당 10가족 이내)

캠프일시/장소

구분	캠프날짜	인원	진행장소
1차	4/7(금)~8(토)	10가족	국립춘천숲체원(강원 춘천)
2차	4/8(토)~9(일)	7가족	국립대전숲체원(대전 유성)
3차	4/15(토)~16(일)	10가족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
비고	*총 4식 제공 / 캠프 장소 개별 집결 / 가족 당 연1회 참석 가능		

※ 현장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 변경 가능

※ 대전숲체원은 숙소가 크지 않은 관계로 가족 당 최대 4명까지 신청

프로그램 내용

산림치유, 자연물을 활용한 가족 숲놀이, 가족소통 인성 프로그램 등

1일차 활동: 산림치유 및 숲활동 / 톡톡톡 공감시간(가족소통 인성프로그램)

2일차 활동: 조식 및 숲산책 / 자연물을 활용한 가족 숲놀이

신청 방법

온라인 참가신청 / 컴퓨터추첨 통해 선발

신청 기간

2023년 3월 10일(금)~19일(일) 자정까지

결과 발표

3월 21일(화)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참가비

1인 당 10,000원(예시: 4인 가족일 경우 40,000원)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전체 비용은 사회공익사업 일환으로 교보교육재단이 지원합니다

문의

교보교육재단 사무국 02-925-8925

가족소통캠프
자세히 알아보기 ►



참사람 36.5°C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